

여성의 교육과 첫 직업성취: 연관성의 시계열적 변화양상*

박 현 준**

지난 몇 십 년 간에 걸쳐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첫 직업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또 그것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1년에 수집한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 이전,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코호트를 구분하였다. 우선, 코호트별로 상이한 교육과 직업의 분포를 통제한 후 교육과 직업의 전반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수선형모형(log-linear model)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과 직업의 전반적인 연관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OLS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교육수준이 직업위세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간 직업위세점수 차이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간 한국 사회의 급속한 교육팽창의 맥락 하에서 여성의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점점 약화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 단어: 여성의 교육, 여성의 직업성취, 교육과 직업의 연관, 대수선형 모형

I. 서론

교육 체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여러 비교 연구들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한 교육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한국 여성들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서구 산업 사회들에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인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진다(Brinton, 2001). 몇몇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성과 학력 수준별로 보여주는 <표 1>은 전반적으로 한국

* 이 글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발표용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한국여성개발원에 감사한다. 유익한 논평을 제공해 주신 세 분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박사과정.

〈표 1〉 25-64세 인구의 성별,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 (1998)

(단위: %)

		전체 교육수준	고등학교 미만	고등학교	고등교육 B (전문대학)	고등교육 A (일반대학)
호주	남성	87	81	89	92	94
	여성	64	55	66	78	82
캐나다	남성	87	74	88	94	92
	여성	71	47	73	82	84
프랑스	남성	85	77	89	93	91
	여성	69	57	76	83	83
독일	남성	85	77	84	93	88
	여성	66	46	69	81	83
아일랜드	남성	87	81	92	93	95
	여성	55	38	63	81	89
이태리	남성	80	74	86	x	91
	여성	47	33	64	x	81
일본	남성	95	87	96	98	98
	여성	62	57	63	62	68
한국	남성	91	87	91	96	93
	여성	55	60	49	58	54
스웨덴	남성	87	80	89	88	93
	여성	81	67	83	86	92
영국	남성	86	68	88	91	93
	여성	73	52	76	85	87
미국	남성	88	75	88	92	94
	여성	73	50	73	82	8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0)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음을 잘 보여준다. 1998년에 25-64세 한국 남성들은 91%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5%로 표에서 두 번째로 낮은 참여율이다. 오직 이태리만이 47%로 한국보다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7%로 미국이나 다른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는 높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여성들의 학력별 노동시장 참여수준이다. 표의 가장 오른쪽 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80% 이상이지

만, 한국의 경우 54%로써 표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더욱 특이한 사실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장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들이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 보다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4%인 반면에 중학교 이하 교육 수준을 가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0%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다른 사회에서 발견되는 교육과 노동시장 지위간의 정(positive)의 관계가 한국 여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강조했다(장지연, 2001; 박수미, 2002). <표 1>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경제활동 정도는 교육 수준에 따라 크게 상이하지 않으며 초등 교육과 비교해 중등 교육이나 심지어 고등 교육 이수가 여성들이 공식 부문의 피고용 근로자가 될 확률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Brinton, Lee and Parish, 2001). 이러한 발견들은 한국 여성들의 급격한 교육 증대는 자신들의 노동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결혼시장을 위한 문화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가능케 하였다(김용학·김진혁, 1990; Lee, 1996; Brinton and Lee, 2001).

한국 여성의 교육과 고용지위 혹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간에 정의 관계가 없다는 이러한 연구들은 성과 관련된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켰지만,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여러 다른 측면들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특히 교육이 직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 교육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그것이 직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와 구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에 별 상관없이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급속하게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관계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위와 교육간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교육이 (특히 첫) 직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결혼이나 출산 같은 생애주기 요인들의 효과로 교육이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위에 약한 효과를 미친다고 해도, 높은 학력 수준은 높은 지위의 직업획득을 가능케 해 교육과 직업성취간에는 강한 정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어느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여러 측면에 걸쳐 교육의 효과를 비교해야 하며 또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교육의 효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직업지위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표 2〉 일년 이하의 직장 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의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상대적 월급

	연도 = 1990		연도 = 1998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중졸 이하	94.5	88.7	95.8	86.3
고졸	100.0	100.0	100.0	100.0
전문대졸	110.4	128.5	101.4	108.6
4년제 대졸	147.2	170.1	134.7	133.2

주: 여기서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학력 소유자의 평균 월급에 대한 각각의 학력 소유자의 평균 월급의 비로 정의된다.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조사(1991, 1996-1999)

차이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넓힐 수 있다.

사실,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측면인 임금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남성들 보다 여성들에게서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년 이하의 노동경험을 가진 노동자들의 월별 임금을 교육 수준과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여주는 〈표 2〉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상대적 임금은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높거나(1990년) 혹은 적어도 비슷하다는(1998년)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일년 이하의 직장 생활을 경험한 남성 고등학교 졸업자가 받는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남성 대학 졸업자의 경우 147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노동자가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았을 때, 대학 졸업자는 170만원을 받았다. 이러한 학력수준간 월급의 차이는 1998년에 남녀 모두 감소해, 남성 대학 졸업자가 받는 월급의 상대적인 비는 135이며 여성 대학 졸업자의 그것은 133이다. 전문 대학이나 중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상대적 격차는 1990년과 1998년 모두 여성의 경우가 크다. 이 자료는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교육의 경제적 수익이 여성들에게도 상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여성의 교육이 첫 직업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교육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 생애 중에서, 최종 교육을 마치고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가장 분명하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노동경험이나 직무 수행, 혹은 사회적 연결망 같은 요인들이 경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교육의 직접적 영향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Gerber, 2001). 따라서 직업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첫 직업의 성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아쉽게도 오직 여

성들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첫 직업간의 관계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없고 주로 여성들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해 조심스럽게나마 교육의 직업적 수익에 관한 성별 차이를 언급할 것이다.

본 논문은 특별히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급속한 교육 팽창의 맥락 하에서 교육이 첫 직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한다.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교육 팽창을 경험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교육 팽창이 남성들에게서는 물론 여성들에게서도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Brinton and Lee, 2001; Park, 2002). 이러한 한국의 특성은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의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경험연구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직업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드물지만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의 지위획득 모형에 기반한 연구들은 부친의 교육이나 직업 같은 가족배경 요인과 본인의 교육이 본인의 직업지위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면서 각각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였다(차종천, 1987, 1992; 방하남·김기현, 200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최종 학력연수를 변수로 활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학력 수준이 노동시장에서 직업적 지위로 전화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직업적 수익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장상수(2001)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와 노동시장간의 연계에 관한 구조적 설명과 그러한 학교-직장 이행 구조가 교육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장상수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첫 직업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학력수준간 직업지위의 차이는 여성과 남성에게서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아울러 특히 중등교육의 직업적 특정성이 낮고 교육체계와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미약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장상수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직업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

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자료의 제약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두 가지 형태, 즉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효과를 구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한국 교육의 직업적 특정성이 낮다는 중요한 주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계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간의 구분은 필수적이다. 자료의 제약은 또 다른 중요한 연구주제인 교육의 직업적 수익이 교육의 팽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시계열적 분석을 불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화 경향이 본격화되는 1980년대와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를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함으로써 학력효과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추후의 연구주제로 미루어지게 되었다(장상수, 2001: 100).

박수미(2002)의 최근 연구는 교육수준의 직업적 수익을 강조하는 '인적 자본론'이 한국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취업여부에 관한 로짓분석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취업확률이 낮아짐을 보여 교육과 노동시장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학력수준이 취업직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판매·서비스직이나 생산, 운수, 단순 노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는 학력수준의 효과가 노동시장의 어떠한 측면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직종을 구분해서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아쉽게도 이러한 교육의 효과에 관한 시계열적 분석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분석에서 사용되는 모형들은 연령 코호트를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령 코호트와 교육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채 교육의 효과가 모든 연령 코호트들에게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아울러 취업직종을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나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을 묶어 판매·서비스직, 생산, 운수, 단순 노무직 전체에 대비되는 이항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직업들간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¹⁾

1) 박수미(2002)의 연구와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전자는 응답자의 현재 취업직종을 분석하나 후자는 첫 직업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교육이 직업에 미치는 효과는 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무렵에 가장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학력 이외의 여러 요인들이 경력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교육의 효과가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2. 가설

한국의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진 교육팽창이 단지 초등 교육이나 중등 교육 수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등 교육 수준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다. 1999년 OECD 자료에 의하면, 55-64세 한국인의 오직 8%만이 대학교육을 이수했으나 25-35세 젊은층 가운데에서는 23%가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젊은층의 대학교육 비율은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의 그것과 비슷하며 29개의 OECD 국가 중에서 오직 두 나라 (노르웨이와 미국)만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치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학교육의 팽창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²⁾

급속한 대학교육 팽창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한가지의 특이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남성들의 그것과 비교해 유사한 속도로 팽창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1985년이래 여성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기관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 대학을 포함해서)으로의 진학률은 남성의 그것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³⁾ 한국 여성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들의 그것과 비교해 유사한 속도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진학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 면에서도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고등교육 증대가 주로 그들의 2년제 전문대학에의 진학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4년제 대학 선호가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였다(Brinton and Lee, 2001; Lee, 2001).

이러한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친 한국 대학교육의 급속한 팽창은 교육의 직업적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음을 예측케 한다. 교육의 급속한 증대로 고등교육 이수자가 급격하게 증대한 반면에 노동시장의 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경쟁에서 뒤진 고등교육 이수자는 자신의 교육 수준에 상응하는 직종을 구할 수 없어 그 이하 단계의 직종을 찾게 되고 이러한 과잉 교육 혹은 교육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교육과 직업간의 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 많아진 대학교육 졸업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그 이전에는 주로

2)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을 변화 추이는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교육팽창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을 포함해서)으로의 진학률은 1970년에 40%이었으나, 1985년에는 54%로 증가하였고 10년 뒤인 1995년에는 73%로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3) 그리하여 1998년에는 여성과 남성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의 상대적 비율은 1:0.96이 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중등교육 졸업자들이 차지했던 직업에까지 대학교육 졸업자들이 밀려들어 중등교육이나 초등교육의 직업적 수익도 저하시킨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대학교육의 본격적인 팽창이 시작되고 특히 1990년대에는 대학교육의 대중화라고까지 일컬어 질 정도의 확대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대학교육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약화되어왔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대학교육의 팽창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학력효과의 약화는 여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학력효과의 약화는 기본적으로 교육 체계의 팽창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적(structural)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등교육의 팽창은 채용에 있어 학력에 대한 의존도에 영향을 미쳐 교육과 직업의 연관(association)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코호트별로 상이한 교육과 직업의 분포를 통제한 이후의 교육과 직업의 순수 연관성을 가리키며 상이한 교육 수준을 가진 개인들을 특정한 직업지위로 배분(allocation)하는 메커니즘의 문제로서 앞서의 구조적 변화와 구별된다(Wolber, de Graaf, and Ultee, 2001).⁴⁾ 예를 들어 브린과 웨런(Breen and Whelan, 1993), 브린과 골드소프(Breen and Goldthorpe, 2001)는 각기 아일랜드와 영국 청년들의 교육과 첫 제급 지위간의 연관 강도가 시계열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변화는 교육 팽창과 함께 고용주의 학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추론하였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고용주들은 채용시 더 이상 학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응시자의 다른 요소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응시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나 심지어 특정한 출신 배경이 오히려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 팽창과 함께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전통적인 산업화 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은 사회의 산업화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출신계급이나 성, 인종, 혹은 종교 같은 귀속적(ascribed) 속성이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교육 같은 성취요소의 영향은 증대한다고 주장한다(Kerr et al., 1960; Treiman, 1970). 다시 말해 산업 발전의 기능적 필요성은 사회적 지위의 분배 메커니즘을 변화시켜 산업사회에서는 점점 더 개인의 능력과 성취라는 보편적 가

4) 이러한 구분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동(structural mobility)과 순환이동(circulation mobility)의 구분에 해당된다.

치가 중요해지고 교육과 직업지위간의 연관성은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산업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 이론은 교육 팽창과 함께 산업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해 왔을 것이라고 예측케 한다.

Ⅲ. 자료와 변수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1년에 실시한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원자료」이다. 1985년에 수행된 1차 조사와 1991년의 2차 조사, 1997년에 이루어진 3차 조사에 이어 2001년에 4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 자료는 조사 대상자의 현 경제활동 상태를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5세 이후의 취업력(career history), 교육력(educational history), 그리고 결혼·출산 같은 생애사적 경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얻은 최초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무척이나 유용하다. 이 자료가 제공하는 또 다른 유용성은 교육 변수를 세분화했다는 것이다. 여타의 자료와는 달리,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 각각의 학력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

최종학력이 직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본 논문은 따라서 현재 학생이거나 혹은 재학 중인 조사 대상자들을 배제한다. 이 글에서는 응답자가 15세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업을 '첫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이들을 크게 여섯 개의 직업 군으로 구분한다: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수산, 숙련 노동, 미숙련 노동. 직업의 교육별, 세대별 분포와 대수선형 모형(log-linear models)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며 이후 OLS 회귀 분석을 위해서는 범주형 변수 대신에 응답자 각각의 직업지위를 척도화한 연속형 변수를 사용한다. 갠즈봄·트라이만(Ganzeboom and Treiman, 1996)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각각의 직업에 해당하는 트라이만 위세점수(Treiman's prestige score)를 부여한다.⁵⁾ 이러한 연속

5)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직업분류는 일관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중분류 항목과 소분류 항목을 구분 없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성격은 일관된 소분류 체계에 기반해 직업위세점수를 부여하는 보다 적합한 방식을 취할 수 없게 한다. 제5차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변수의 이점은 보다 적은 수의 모수들을 가지고 보다 간결한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인 학력 변수는 크게 6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초졸, 중졸, 실업계 고졸, 일반계 고졸, 2년제 전문대학, 그리고 4년제 일반대학.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학력수준이 직업획득에 미치는 영향과 그 추이에 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자료의 제약으로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효과에 관해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력변수의 사용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인의 학력과 아울러 첫 직업획득에 미치는 요소로 이 논문에서 고려되는 다른 요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의 연령이다. 똑같은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각각의 연령에 따라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을 갖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사람간에는 취업 가능한 직종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력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직업을 얻을 때의 연령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학력과 첫 직업 획득 시의 연령 같은 본인 자신의 특성과 아울러 가족배경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자료는 먼저 응답자가 15세 무렵 누구와 같이 살았는지를 묻고 이어 해당하는 부모의 당시 직업과 최종학력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15세 무렵 동거한 부모가 양친이거나 편부인 경우 아버지의, 편모인 경우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직업을 부모의 학력과 직업 변수로 삼는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모두 포함)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직업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수산, 생산직, 그리고 기타의 6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⁶⁾ 부모의 직업 역시 보다 간결한 모형을 위해 연속형 범주로 취급하는 것이 유용하나 원자료는 구체적인 직업항목 대신에 오직 위

일관된 직업분류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6) 이 글에서는 15세 무렵 양친이 이미 모두 생존에 계시지 않았거나 부모의 최종학력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의 더미 변수를 만들어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부모의 직업변수도 마찬가지로 구성하였다. 다만 직업변수에서는 무응답과 양친이 생존에 계시지 않았던 경우와 아울러 무직의 경우를 모두 같은 더미 변수에 포함시켰다.

와 같은 대분류의 직업항목만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수준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의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응답자들을 첫 직업 획득 시점을 기준으로 세 개의 코호트로 구분한다. 첫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가 1980년 이전인 첫 번째 코호트와 그 시점이 1980년대인 두 번째 코호트, 그리고 그 시점이 1990년 이후인 세 번째 코호트를 구별해 각각의 학력수준이 직업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이들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한다. 첫 직업 획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분류 방식은 보통 다른 연구들에서처럼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성하는 방식보다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더욱 잘 반영한다. 같은 연도에 출생하였다더라도 진학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1980년대 들어 고등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에는 그 팽창 속도가 더욱 두드러져 고등교육의 대중화시기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팽창이 학력과 직업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1980년 이전,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1970년대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직업에의 취업을 목표로 특수한 기능습득에 치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인문·교양 위주로 바뀌었다는(이무근, 1990; 장상수, 2001) 사실을 감안할 때, 1980년대 이후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변화는 직업교육의 특정성을 더욱 약화시켰을 테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장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내는 가치를 약화시켰다고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와 그 이전을 구분하는 방식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IV. 대수선형 모형 분석: 교육과 직업간의 전반적인 연관성

1. 교육과 직업의 코호트별 분포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코호트별로 교육수준과 첫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듯 싶다. <표 3>은 각각의 코호트별로 여섯 개 교육수준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여성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의 확대이다. 1980년 이전에 첫 직업을 갖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과반수(44%)가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그 이하인 반면에 1990년대에 노

〈표 3〉 코호트별 교육과 직업의 분포(%)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본인의 최종학력			
초졸 이하	44.4	11.7	8.1
중졸	21.1	12.2	8.7
실업계 고졸	13.2	30.5	28.7
일반계 고졸	14.6	24.4	20.5
전문대졸	1.5	4.1	8.8
4년제 대졸	5.2	17.1	25.2
첫 직업			
전문·관리직	7.5	15.1	21.9
사무직	18.6	38.2	31.0
판매·서비스직	13.7	17.8	28.4
농수산직	30.4	4.1	1.0
숙련 육체 노동직	19.6	17.3	8.3
미숙련 육체 노동직	10.4	7.5	9.5

주: 소수점 아래 자리수의 반올림으로 교육과 직업의 각 분포의 합은 100%가 안될 수도 있다.

동시장에 직업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직 8%만이 그러한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비율은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가운데 9%가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며 25%는 일반대학 졸업자이다. 이러한 분포는 1980년 이전 코호트의 경우 오직 1.5%만이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며 5%만이 일반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간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증가는 표에서 드러나는 초직의 분포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의 팽창은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관리직의 비율이 코호트별로 증가하는 것과 연관된다. 1980년 이전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사람들 가운데 7%만이 전문·관리직에서 자신들의 직장 생활을 시작한 반면에, 1990년대 코호트 가운데에서는 22%가 전문·관리직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⁷⁾ 다른 한편, 이러한 전문·관리직의 증가와

7)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해 1990년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전문/관리직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학교를 마치고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에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같은 전문직이나 관리직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간에 상당한 직종 차이가 발견된다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분석에 포함되는 총 3,299명의 표본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504명이 전문/관리직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동시에 농수산직의 급속한 감소가 두드러진다. 1980년 이전 코호트의 30%가 농수산직에 취업한 반면에 1990년대 코호트 가운데에서는 오직 1%만이 농수산직에서 자신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표에서 나타나는 또 한가지 특이한 변화는 숙련 노동직의 감소이다. 1980년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사람들 가운데 20%가 생산직에 취업했지만, 그 비율은 1990년대에 들어 8%로 감소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여성들의 생산직 취업 감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노동력 구성에 있어 제조업의 서비스업으로의 대체 경향과 연관된다(김태홍·김영옥·양승주·문유경, 1997).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생산직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판매·서비스직으로의 유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 이전 코호트의 14% 정도가 판매·서비스직에 취업한 반면에 1990년대 코호트 가운데에서는 28%가 판매·서비스직에 취업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음을 반영하며 이러한 서비스직으로의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졌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미숙력 노동직의 경우 이렇다할 변화를 찾기 힘들다.

2. 대수선형 모형

이제 논의를 옮겨 본격적으로 학력수준과 초직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우선 대수선형 모형 분석을 시도한다. 대수선형 모형은 코호트별로 상이한 교육과 직업의 분포를 통제하고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는데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차종천, 1991, 1992). 대수선형 모형은 특히 출신계급과 도달계급의 연관성을 포착하려는 사회이동(social mobility) 연구분야에서 널리 활용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Hout, 1983; Powers and Xie, 2000). 여러 가지 모형 가운데에서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log-multiplicative layer effect model)은 세대간 이동의 연관성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파악하는데 특히 널리 사용되었고 이런 점에서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려는 본 연구에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코호트별로 다르지 않다고, 다시 말해, 연관성의 정도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항상 모형(constant model)과 연관성이 코

이들 504명중에서 자그마치 77%에 해당하는 388명이 의료전문가거나 교육전문가이다. 전자의 항목은 주로 간호에 관련된 직종이고 후자의 항목은 초, 중고등학교 교사직이다. 이는 비록 여성들의 전문직 비율이 남성의 그것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같은 전문직 안에서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호트별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변하였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이어 만약 변하였다면, 즉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 나면, 모형의 모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어떤 특정한 코호트의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은 전체 코호트들에 적용되는 공통의 연관성 모수와 이러한 공통 모수로부터의 각 코호트별 편차를 나타내는 모수의 대수승법적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Xie, 1992). 연관성의 각 코호트별 편차를 나타내는 모수가 크면 클수록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은 편차 모수들을 비교함으로써 간결(parsimonious)하고 쉽게 여러 코호트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와 결혼하고 나서 취업하는 경우, 취업 가능한 직종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섯 개의 교육수준과 여섯 개의 직업 범주, 그리고 다시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경우와 결혼 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경우의 두 개 항목, 마지막으로 세 개의 코호트로 구성된 여섯 개의 6×6 교차표를 만들어 여러 가지 대수선형 모형들을 여기에 적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대수선형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

$$F_{ijkl} = \tau_0 \tau_i^E \tau_j^O \tau_k^M \tau_\ell^C \tau_{jk}^{OM} \tau_{i\ell}^{EC} \tau_{j\ell}^{OC} \tau_{ik\ell}^{EMC} \tau_{jk\ell}^{OMC} \tau_{ij}^{EO} \tau_{ijk}^{EOM} \tau_{ij\ell}^{EOC} \tau_{ijk\ell}^{EOMC} \dots\dots(1)$$

여기서, F_{ijkl} 는 4차원 교차표에서 교육 수준 $i(i=1, \dots, 6)$, 직업 범주 $j(j=1, \dots, 6)$, 결혼전 취업 여부 $k(k=1, 2)$, 마지막으로 코호트 $l(l=1, 2, 3)$ 에 해당하는 칸의 기대치이다. 식 (1)은 사실 모든 모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며 이 식으로부터 적절한 변형을 통해 보다 간결한 모형을 찾는 것이 대수선형 모형 분석의 기본이라 하겠다. 식 (1)에서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마지막 네 개의 모수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얻는다.

$$F_{ijkl} = \tau_0 \tau_i^E \tau_j^O \tau_k^M \tau_\ell^C \tau_{ik}^{EM} \tau_{jk}^{OM} \tau_{i\ell}^{EC} \tau_{j\ell}^{OC} \tau_{ik\ell}^{EMC} \tau_{jk\ell}^{OMC} \dots\dots\dots(2)$$

식 (2)의 모형은 교육과 직업의 분포가 결혼 전 취업 유무와 코호트별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나 교육과 직업간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조건부 독립모형(conditional independence model)이다. 대부분의 경

우 이러한 조건부 독립모형은 자료에 적합하지 않으나 다른 모형들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교 준거점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식 (1)에서 오직 마지막 세 개의 모수들을 제외하고 τ_{ij}^{EO} 모수를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이 된다.

$$F_{ijk\ell} = \tau_0 \tau_i^E \tau_j^O \tau_k^M \tau_\ell^C \tau_{ik}^{EM} \tau_{jk}^{OM} \tau_{i\ell}^{EC} \tau_{j\ell}^{OC} \tau_{ik\ell}^{EMC} \tau_{jk\ell}^{OMC} \tau_{ij}^{EO} \dots\dots\dots(3)$$

이 모형은 τ_{ij}^{EO} 모수를 포함함으로써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을 상정하나 이러한 연관성이 다른 두 변수, 즉 결혼 전 취업 여부나 코호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3차원 상호작용 모수들을 제외함으로써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결혼 전 여부나 코호트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항상 모형(constant model)이다.

마지막으로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F_{ijk\ell} = \tau_0 \tau_i^E \tau_j^O \tau_k^M \tau_\ell^C \tau_{ik}^{EM} \tau_{jk}^{OM} \tau_{i\ell}^{EC} \tau_{j\ell}^{OC} \tau_{ik\ell}^{EMC} \tau_{jk\ell}^{OMC} \exp(\Psi_{ij} \Phi_{k\ell}) \dots\dots\dots(4)$$

여기서 Ψ_{ij} 은 전체 교차표에 공통인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을 나타내며 $\Phi_{k\ell}$ 는 결혼 전 취업 여부와 코호트별 각각의 편차 모수들이다. 식 (4)로 표현되는 모형은 편차 모수들이 결혼 전 취업 여부와 코호트별로 각각 상이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편차 모수들이 코호트별로 상이하나 결혼 전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또 하나의 보다 간결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표 4>는 여러 가지 대수선형 모형들이 교육, 직업, 결혼 전 취업 여부, 그리고 코호트를 교차시켜 만든 여섯 개의 6×6 교차표에 적용되었을 때의 적합도와 자유도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대수우도비 카이제곱 통계치(log-likelihood ratio chi-square statistics: L^2)와 아울러 베이저안 정보규준(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활용한다. 기존의 대수우도비 카이제곱 통계치에 비해 표본수를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는 BIC 통계치는 전통적인 모형 비교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Raftery, 1995; Powers and Xie, 2000).⁸⁾ 특정 모형

8) BIC 통계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IC = L^2 - d.f \times \log N$
 여기서, L^2 은 대수우도비 카이제곱 통계치이며, d.f는 자유도를, 그리고 N은 전체 표본수를 나타낸다(Raftery, 1995).

〈표 4〉 대수선형 모형들의 적합도와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의 편차 모수 추정치

	df	L ²	BIC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결혼 후	결혼 전	결혼 후	결혼 전	결혼 후	결혼 전
1. 조건부 독립 모형	150	1928.33	713						
2. 항상 모형	125	153.46	-859						
3.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A	123	129.28	-867	0.685	0.582	0.438			
4.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B	120	122.77	-849	0.583	0.734	0.482	0.662	0.497	0.451

주: 모형 3의 편차모수들의 합은 1, 모형 4의 편차모수들의 합은 2가 되도록 척도화 하였다.

의 BIC 값이 음일 경우 그 모형은 포화모형에 비해 선호되며 일반적으로 BIC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표 4〉에서 모형 1은 앞서 소개한 조건부 독립모형이다. 이 모형은 교육과 직업의 분포가 결혼 전 취업 여부와 코호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나 교육과 직업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150개의 자유도에 L²=1928를 나타내는 이 모형은 적합도가 매우 나쁘며 이것은 교육과 직업간에 연관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모형 2는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을 상정하고 특히 이 연관성이 코호트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는 항상 모형이다. 125개의 자유도에 L²=153.46을 나타내는 모형 2는 모형 1에 비해 25개의 모수를 더 필요로 하지만, L² 값을 자그마치 1775 (=1928.33-153.46)나 줄이고 있다. 아울러 BIC 통계치 역시 -859로써 포화모형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3은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결혼 전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그다지 다르지 않으나 코호트별로는 상이하다고 가정하는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항상 모형(모형 2)보다 2개의 모수를 더 활용해 L² 값을 24 (=153.46-129.28)만큼 줄인다. 카이제곱 분포표에 따르면 2개의 자유도에 24만큼의 차이는 95%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이다. 아울러 모형 3의 BIC 값은 -867로써 모형 2의 BIC 값 -859보다 더욱 작으며 따라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모형 선택에 있어 선호된다. 이러한 모형 2와 모형 3의 비교는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3개의 코호트간에 상이하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마지막으로 모형 4는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코호트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결혼 전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상이하다고 가정하는 또 하나의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이다. 이 모형은 모형 3에 비해 3개의 모수를 더 활용하고 있지만, L² 값을 오직 6만큼 밖에 줄이지 못해 모형 3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 주지 못한다. 아울러 -849의 BIC 통계치는 모형 3의 -867보

다 더 크며 이는 모형 3의 적합도가 모형 4의 적합도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코호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 3의 적합도가 <표 4>의 네 가지 모형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안 이상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모형 3이 나타내는 편차 모수들의 방향성이다. 다시 말해 편차 모수들이 코호트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표 4>는 모형들의 적합도와 아울러 모형 3과 모형 4의 편차 모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편차 모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연관성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듯이 편차 모수는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⁹⁾ 1980년 이전에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코호트에게서 나타나는 편차 모수를 0.685라고 했을 때, 1980년대 코호트와 1990년대 코호트에게서는 그 편차 모수가 각각 0.582와 0.438이다. 편차 모수들이 이런 식으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사실은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점점 더 약화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코호트별로는 물론이거니와 결혼 전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가정하는 모형 4는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는 것은 못했지만, 모형의 편차 모수들이 코호트와 결혼 전 취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1980년 이전에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이미 결혼한 이후였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편차 모수를 0.538이라고 했을 때 같은 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지만 결혼 전이었던 사람들의 편차 모수는 0.734, 1980대 코호트의 상응하는 편차 모수들은 각각 0.482와 0.662이다. 1990년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혼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편차 모수는 0.497인 반면, 결혼 전 사람들의 경우 0.451이다. 다시 말해, 1980년 이전 코호트와 1980년대 코호트의 경우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가 결혼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1990년대의 코호트에게서는 그러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1980년대 코호트에 비해 1990년대 코호트

9) 모수 추정을 위해 모형 3의 편차모수들의 제곱의 합은 1이 되고 모형 4의 편차모수들의 제곱의 합은 2가 된다는 제약을 부과한다. 따라서 편차모수들의 절대적인 값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대수승법적 결효과 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해 필요한 이러한 제약에 관련해서는 Raymo와 Xie(2000)을 참조할 수 있다.

가운데 결혼 후 취업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지만,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형 4가 보여주는 편차 모수의 전반적인 양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코호트들 중에서 결혼 후 취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점점 약화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모형 3의 결론과 일치한다. 특히 결혼 전에 취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약간은 다른 변화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비록 모형선택은 코호트에 따른 변화만을 가정하는 모형을 지지하지만, 결혼 전에 취업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V. OLS 회귀분석 결과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대수선형 모형 분석은 한국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교육과 직업의 전반적인 연관성이 약화되어왔음을 드러내어주었다. 이처럼 대수선형 모형 분석은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학력수준이 직업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그러한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본인의 학력과 결혼 전 취업 여부만이 고려되고 있을 뿐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같은 가족배경의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업지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학력수준이 직업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그것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가족배경과 첫 직업 획득시의 연령은 본인의 학력수준과는 별도로 직업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¹⁰⁾

트라이만 위세점수로 척도화된 직업지위에 미치는 여러 독립변수들의 영

10) 앞서 논의된 대수선형 모형 분석에서는 범주형 자료가 필요했기에 결혼 전 취업 여부라는 이항 변수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자료에서 결혼 전 취업 여부와 첫 취업시 연령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결혼 전에 첫 취업한 경우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첫 취업시 연령이 낮다. 실제로 첫 취업시 연령 대신에 결혼 전 취업 여부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한 논평자에게서 회귀분석에 있어서 학력과 첫 취업시 연령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 하지만, 본 자료에 대한 자세한 검토 결과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첫 취업시 연령은 결혼 전에 취업을 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학력 수준 그 자체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같은 학력이라도 결혼 전 취업 여부에 따라 첫 취업시 연령이 다를 수 있다.

항력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세 코호트를 통합한 (pooled) 자료를 가지고 각각의 독립변수와 코호트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지 살펴본다. <표 5>의 모형 1은 독립변수들의 주 효과만을 포함하는 제한된 모형으로 교육, 취업시 연령, 부모의 교육과 직업의 효과가 코호트별로 다르지 않다고 상정한다. 이 모형은 직업지위의 통 변량의 약 46%를 설명하고 있다($R^2=0.46$).

반면, 모형 2는 교육과 코호트간의 상호작용항들을 포함하는 모형으로서 교육의 효과가 각 코호트별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교육과 코호트간의 상호작용 항들이 모두 0이라는, 다시 말해 상호작용이 유효하지 않다는 가설을 검토하기 F 통계치 검증을 시도하였다. 모형 2의 F값은 4.91($p<.001$)로서 이러한 가설이 입증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교육과 코호트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는 교육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가 세 개의 코호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형 3에서는 교육의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취업시 연령의 효과 역시 코호트별로 상이하다는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과 코호트간의 상호작용 항들 이외에 취업시 연령과 코호트간의 상호작용항들을 포함한다. 모형 3의 F값은 5.50($p<.01$)으로서 취업시 연령의 효과가 코호트별로 상이하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이어서 계속해서 모형 4와 5를 통해 부모의 교육과 직업의 효과가 코호트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기 위해 모형 3에다 각기 부모의 교육과 코호트, 부모의 직업과 코호트간의 상호작용항들을 첨가하였다. F 검증은 부모의 교육과 직업의 경우 세 코호트에 걸쳐 그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표 5>의 분석 결과는 직업지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 가운데에서 교육과 취업시의 연령의 효과가 코호트별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모형 3을 자료에 제일 적합한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게 한다.

<부록>에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 3의 회귀계수들이 모형 1과 모형 2의 그것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모든 회귀계수들을 살펴보는 대신에 본 연구의 초점인 교육 수준의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살피기 위해 <그림 1>에서 각 교육 수준과 기준이 되는 최저 학력인 초졸 이하의 위세 점수 차이를 코호트별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모형 3의 회귀계수들 가운데 교육의 주 효과와 교육×코호트 상호작용 효과 계수들을 이용해 계산되었다.

우선 1980년 이전 코호트를 살펴보면,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나 혹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위세점수가 약 2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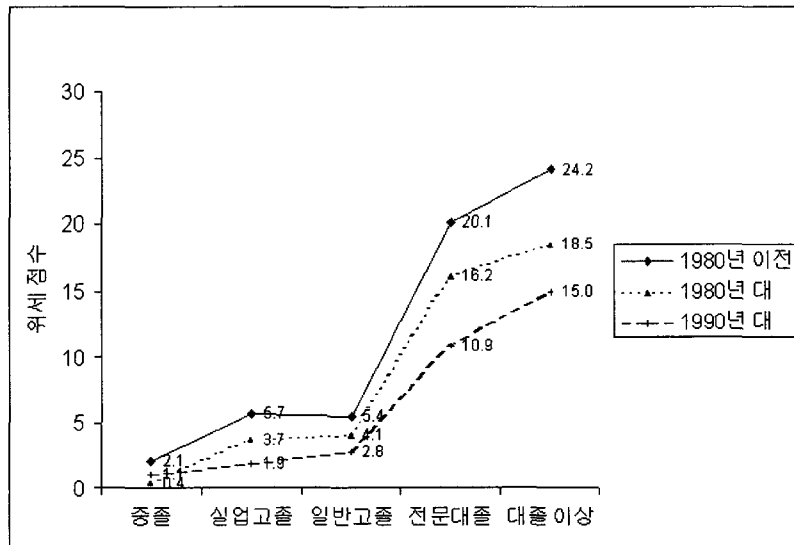
<표 5> 독립변수들과 코호트간의 상호작용의 유의미성

	독립변수의 수	R ²	F 값
1. 코호트 + 교육 + 취업시 연령 + 부모의 교육 + 부모의 직업	17	0.4629	--
2. 모형 1 + 교육×코호트	27	0.4710	4.91***
3. 모형 2 + 취업시 연령×코호트	29	0.4729	5.50**
4. 모형 3 + 부모의 교육×코호트	37	0.4734	0.37
5. 모형 3 + 부모의 직업×코호트	39	0.4746	1.04

주: * p<.05, ** p<.01, *** p<.001

도 높은 직업을 갖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첫 직업은 가장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첫 직업보다 위세 점수면에서 약 5점 정도 높다. 전문대학 졸업할 경우는 20점, 일반대학을 졸업할 경우는 24점 정도 높은 직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첫 직업의 위세점수가 높다. 이것은 직업획득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력이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 코호트별 교육수준간 직업위세 점수차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위세점수의 직업을 갖는다는 사실은 비단 1980년 이전 코호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개의 코호트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과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지위 혹은 노동시장 참여간에는 매우 약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교육수준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아마도 결혼이나 출산 같은 생애주기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따라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결혼을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교육수준은 고용지위 혹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 여성 노동자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직업획득에 있어 유의미한 교육수준의 차이가 발견됨과 아울러 <그림 1>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교육의 영향력이 최근 코호트들로 오면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 이전 코호트의 경우 대학 졸업자의 첫 직업은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첫 직업보다 위세점수에서 24점이 높았지만, 1980년 코호트에서는 19점, 그리고 1990년 코호트에서는 15점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비단 대학 졸업의 경우만이 아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첫 직업과 최저 학력 소지자의 첫 직업간의 위세점수 차이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20점에서 16점, 그리고 더 나아가 11점으로 줄어들었다. 일반계 고졸이나 실업계 고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위세 점수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¹¹⁾

이처럼 학력간 직업위세의 차이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줄어든다는 결과는 교육체계의 급속한 팽창으로 대학교육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가지는 가치가 줄어들고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여성들의 교육 팽창이 남성들의 그것과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교육이 직업

11)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직업적 수익이 줄어들는데 있어 실업고졸업과 일반고졸업간에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1980년 이전 코호트의 경우 실업고졸업은 일반고졸업에 맞먹는 직업적 수익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1990년 코호트에 이르면, 실업고졸업의 직업적 수익은 일반고졸업의 직업적 수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가설들을 논의하면서, 197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적 특정성을 언급했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위해 당시 실업계 교과과정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직업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치중했었다. 이러한 실업계 교과과정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양, 인문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직업적 특정성을 잃게 되고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의 직업적 수익을 저하시켰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하지만, 분석에서 나타나는 정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도한 해석은 피해야 하겠다.

획득에 끼치는 영향이 약화될 것이라는 앞서의 가설을 지지한다.

초점을 옮겨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 3의 다른 회귀계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기준이 되는 1980년 이전 코호트의 첫 취업시 연령의 효과(-0.056)는 음의 부호를 띠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효하지는 않다. 하지만, 취업시 연령과 다른 두 코호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음의 부호를 띠면서 그 절대적 크기가 커지고 특히 1980년 이전 코호트와 최근의 1990년 코호트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연령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인 연령 효과가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끝으로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부모의 교육과 직업의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이 높을수록, 또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자식의 직업지위가 높다는 일반적인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VI. 요약과 토론

대수선형 모형과 직업 위세점수를 이용한 OLS 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교육과 첫 직업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려고 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용상태에 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발견은 한국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주장을 가능케 하였다(박수미, 2002). 하지만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지위의 다른 측면인 직업획득에 있어서 여성의 교육은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교를 마치고 첫 직장을 갖는데 있어 여성 자신의 학력수준은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여성들만을 포함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장상수(2001)의 연구나 '한국 노동패널 조사'를 이용한 본인의 예비적 분석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학력 수준간 직업지위 차이는 남성의 그것에 비해 오히려 크거나 적어도 작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똑같은 학력을 가지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수준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학력의 소유자라 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노동환경이나 경력형성 면에서도 훨씬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처한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보여준 바 있다(금재호, 2002). 본 논문이 강조하는 바는 학력수준간 직업지위의 차이가 여성들에게도 있어 실제적이며 이는 부분적이거나 여성들의 교육

투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결혼 후에는 취업할 확률이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갖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교육수준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직업적 수익이 있기에 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 교육수준의 급속한 증대를 단순히 결혼시장을 위한 문화적 이유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도 교육과 직업지위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교육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참여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이는 노동시장의 다른 측면들이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실제적인 교육의 직업적 수익에도 불구하고 왜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달성하는 경제적, 문화적 수익이 크기 때문이거나, 결혼이나 출산 같은 여성의 생애사적 요인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강한 사회적 규범, 그리고 보육 시설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장치의 부재 등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교육의 직업적 수익이 여성들에게서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안 이상, 더욱 더 정교한 모델을 통해 여성들이 이러한 교육의 직업적 수익과 앞서의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선택하는가 하는 미세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드러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교육의 직업적 수익이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효과의 약화는 급속한 교육 팽창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대수선형 모형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통제한 이후의 연관성의 변화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교육에 따른 직업 분배 메카니즘이 기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연관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산업화 이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오히려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우에서처럼 이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교육 팽창에 따라 직업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력 수준이 더 이상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교육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력이 증대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Breen and Whelan, 1993; Breen and Goldthorpe, 2001). 과연 그러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며 또 남성들에게서도 같은 경향이 발견되는지 여부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일반계 고등학교나 일반대학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

문대학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가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들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해 현 직업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한다. 대학교육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하며 또 어떤 식으로 직업적 특정성을 높여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본 연구가 수행하지 못한 중요한 연구과제를 생각해보면서 논의를 끝맺기로 한다. 앞서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서 언급했듯이, 비록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이 남성의 그것과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다 해도 전문직 내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진출하는 직종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 전문직의 대부분은 간호나 교사직과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 직종의 차이는 아마도 남성과 여성들의 대학 전공차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교육수준을 그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공까지도 고려할 때 교육이 직업에 미치는 효과의 성별 차이를 보다 자세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호(2002),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영화·박용현·한승희·김승주(1997),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7-9.
- 김용학·김진혁(1990), “지역감정의 관계적 분석: 결혼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4: 1065-1076.
- 김태홍·김영옥·양승주·문유경(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노동부(1991, 1996), 《임금 구조조사》
- 박수미(2002),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25(1): 113-43.
- 방하남·김기현(2000),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이무근(1990), 《직업·기술교육에서의 교육과정》, 배영사.
- 장상수(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지연(2001), "고학력여성 경제활동의 국제비교," 《여성 과 일》,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차종천(1987), "지역주의가 한국 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민의 출신 지역별 지위획득과 사회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여름): 69-91.
- _____(1991), "남성 세대간 사회이동표에 대한 상호연관모형 분석," 《한국사회학》 25(겨울): 155-175.
- _____(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출판사.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통계편람》, 한국교육개발원.
- Blau, Peter M., and Otis D. Duncan(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Breen, Richard and John H. Goldthorpe(2001), "Class, Mobility and Merit: The Experience of Two British Birth Cohor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 81-101.
- Breen, Richard and Christopher T. Whelan(1993), "From Ascription to Achievement? Origins, Education and Entry to the Labor Force in the Republic of Irelan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Acta Sociologica* 36(1): 3-17.
- Brinton, Mary C.(2001),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inton, Mary C., and Sunhwa Lee(2001), "Women's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and South Korea," in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edited by Mary C. Brinton, pp. 125-5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inton, Mary C., Yean-Ju Lee, and William L. Parish(2001), "Married Women's Employment in Rapidly Industrializing Societies: Korea and Taiwan," in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edited by Mary C. Brinton, pp. 38-6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anzeboom, Harry B.G, and Donald J. Treimand(1996), <http://www.fss.uu.nl/soc/hg/ismf>
- Gerber, Theodore P.(2001), "Loosening Links? School-to-Work Transition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Russia since 1970,"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 of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RC28, Mannheim, Germany, April 2001.
- Hout, Michael(1983), *Mobility Tables*, Beverly Hills, CA: Sage.
- Kerr, Clark et al.,(1960),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The Problems of Labor and Management in Economic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Mijeong(1996),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Women's Lives under Institutional Conflict* (Dissertation). UCLA.
- Lee, Sunhwa(2001),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South Korea," in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edited by Mary C. Brinton, 204-3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ueller, Walter and Yossi Shavit(1998), "The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the Stratification Process: A Comparative Study of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s in Thirteen Countries," in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edited by Yosshi Shavit and Walter Mueller, pp. 1-48, Oxford: Clarendon Press.
- OECD(2000),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OECD.
- Park, Hyunjoon(2002),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Prague Meeting on the Project for Higher Education, Prague, June 7-9, 2002
- Powers, Daniel A., and Yu Xie(2000), *Statistical Methods for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Raftery, Adrian E.(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by P. Marsden, pp. 111-63,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Raymo, James M., and Yu Xie(2000), "Temporal and Regional Variation in the Strength of Educational Homogamy: Comment on Smits, Ultee, and Lamm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5): 773-81.
- Shavit, Yossi and Walter Mueller(1998),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 Treiman, Donald(1970),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Social Stratification, Research and Theory for the 1970s*, edited by E. Laumann,

pp. 207-234. Indianapolis: Bobbs-Merill.

Wolbers, Maarten H., Paul M. de Graaf, and Wout C. Ultee(2001), "Trends in the Occupational Returns to Educational Credentials in the Dutch Labor Market: Changes in Structures and in the Association?" *Acta Sociologica* 44(1): 5-19.

Xie, Yu(1992), "The Log-Multiplicative Layer Effect Model for Comparing Mobility T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3): 380-95.

〈부록〉 첫 직업의 위세 점수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코호트			
1980년 이전	(준거 변수)		
1980년대	-0.042	2.042*	2.949
1990년대	-0.944*	1.685	7.138***
본인의 학력			
초졸	(준거 변수)		
중졸	1.868***	1.897**	2.075***
실업계 고졸	5.095***	5.508***	5.709***
일반계 고졸	5.370***	5.340***	5.424***
전문대 졸	15.581***	20.073***	20.098***
대졸 이상	19.207***	24.367***	24.185***
첫 취업시 연령	-0.119***	-0.170***	-0.056
부모의 교육			
초졸	(준거 변수)		
중졸	0.578	0.640	0.630
고졸	1.591***	1.675***	1.650***
대졸	1.496*	1.506*	1.488***
부모의 직업			
전문·관리직	(준거 변수)		
사무직	-1.537*	-1.440*	-1.444*
판매·서비스직	-0.819	-0.686	-0.701
농수산직	-1.549**	-1.363*	-1.335*
생산직	-1.219	-1.192	-1.265
교육 × 코호트			
중졸 × 1980년대		-1.968	-1.713
중졸 × 1990년대		-0.253	-0.995
실업고졸 × 1980년대		-2.499*	-2.035
실업고졸 × 1990년대		-2.200	-3.823**
일반고졸 × 1980년대		-1.879	-1.359
일반고졸 × 1990년대		-1.359	-2.643*
전문대졸 × 1980년대		-4.496	-3.934
전문대졸 × 1990년대		-7.724***	-9.223***
일반대졸 × 1980년대		-6.334***	-5.635***
일반대졸 × 1990년대		-8.071***	-9.192***
취업시 연령 × 코호트			
취업시 연령 × 1980년대			-0.069
취업시 연령 × 1990년대			-1.763**
상수	33.983***	34.501***	31.995

주: * p<.05, ** p<.01, *** p<.001